

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청렴·안전 캠페인' 전개

입력: 2026.08.04 09:29 / 수정: 2026.08.04 09:29

여름철 청렴 문화 기강 확립·안전사고 예방 의지 다져



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직원들이 여름철 청렴 문화 기강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 의지를 다지고 있다. / 농어촌공사

[더팩트 | 전남광주=주남현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는 3일 청렴한 조직문화 확립과 안전관리를 위한 '청렴·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김철상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를 포함한 전 직원이 여름철 청렴 문화 기강을 확립하고, 하계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청렴 체크리스트는 △휴가 일정 준수 및 근태관리 철저 △무단이석 금지 및 근무시간 준수 △업무 인계 철저 및 비상연락 체계 유지 △이해충돌 상황 발생시 회피 및 신고 △공직자 품위 유지 및 행동강령 준수 등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는 이와 함께 여름철 시설물 관리 및 수상 안전사고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했다. 분기별 청렴 계획을 수립·실천하고, 매월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해 핵심 안전 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김철상 지사장은 "안전과 청렴은 우리 공사의 기본이자 최우선 가치"라며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안전하고 투명한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